

**국민의힘**  
**시장도 없고**  
**도의원도 없고**  
**시의원만**  
**남았습니다.**



**시의원 후보**

- 현) 국민의힘 시흥갑 부위원장
-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 20, 21기 자문위원

**2-나 남성현**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시흥시의회의원선거 (시흥시나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b>2-나</b>	<b>국민의힘</b>	<b>남성현</b>	남	1978.03.01. (48세)	정당인	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3년제)졸업	(현)국민의힘 경기 시흥갑 부위원장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20기, 21기 자문위원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64,700	64,700	0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0	공군 병장 (만기전역)	

##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0,000원 (2009.01.20)
		체납액 누계(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442	0	0	
후보자	442	0	0	
배우자	0	0	0	
직계존속	0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 4. 소명서

--

과림, 대야  
매화, 목감동의  
도약과 미래

성실한  
2-나 남성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10년 현장 경험의 실천형 복지전문가 남성현"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머리, 일자리 전문가의 부지런한 발!"

[지역별 맞춤 현안 및 공약]

1) 대야동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공약으로 품격을 만들겠습니다.)

신·구도심이 혼재된 지역으로, 원도심의 활력 제고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

- (재생 및 주거)대야동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적 안착 및 노후 주거지 주차난 해소
- (상권 복지)대야 상업지구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 (어르신 복지)원도심 내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찾아가는 어르신 통합 복지 서비스' 운영
- (안전 및 휴식)노후 주거지역 내 스마트 안심 골목길(CCTV, 스마트 가로등) 조성 및 소래산 산림욕장·신천천 생태하천 정비

2) 목감동 (교통망 확충 및 생활 인프라 완성으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목감동 1·2구역 재개발, 원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개발과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전면 재점검 및 배차 간격 단축
- (돌봄 및 교육)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확대
- (생활)물왕호수 주변 무장애(Barrier-Free) 둘레길 조성 및 주변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3) 매화동 (자족도시 도약 및 교통 고립 해소를 매화동을 도약시키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과 배후주거단지 조성이 맞물려 있어, 인프라 선제 구축이 핵심입니다.

- (교통)신안산선 매화역(가칭) 차질 없는 추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 신설
- (노동 및 일자리)매화산업단지 내 노동자 작업 환경·휴게 시설 개선 지원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매칭 센터 운영
- (보육 및 주거)배후주거단지 조성 시 도로·학교·공원 선제적 확보 및 국공립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 (건강 및 환경)산단 주변 환경 오염(소음, 분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완충 녹지 조성

4) 과림동(3기 신도시의 합리적 보상과 상생 개발로 과림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원주민 보호와 기업 이전 대책이 최우선 현안입니다.

- (상생 및 주거 권리) 신도시 추진 시,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권 쟁취 및 재정착을 돕는 주거 복지 상담 창구 개설
- (경제 및 기업 복지)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이전 단지 조성
- (안전)신도시 개발 전까지 기존 마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로 파손, 방범, 폐기물 문제 등 생활 안전망 철저 유지 및 난개발 방지

# 시흥시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올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시흥시 시민 여러분, 시흥시의원 후보 기호 2번, 남성현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우리에게 시정을 이끌 시장도, 도정에 목소리를 낼 도의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12년의 기다림, '8대 8' 동수로 시의회 탈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기초의회인 시의회에서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저 남성현이 당선되어야만 시의회 의석을 '8대 8' 동수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무려 12년 만에 시의회 의장 자리를 단 한 번이라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싸움이 아닙니다. **무너진 시흥시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자 '원동력'입니다.** 저 남성현을 선택해 주셔야만 8대 8의 기적을 만들고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이 시흥에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생명은 '일관성'과 '순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공천 과정을 보며 저를 비롯한 많은 당원 동지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당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일관성이 있고, 헌신에 대한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오직 당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후보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땀 흘려온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민주당적 7년이 있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불과 1년 2025년 5월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가'번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11년간 당을 지켜온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의 땀방울을 외면한 처사이며, 무엇보다 시흥시 국민의힘을 지탱해 온 당원 동지 여러분의 자존심과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결정입니다. 원칙도, 순서도 없는 이러한 결정에 우리는 결코 무기력하게 순응할 수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당한 현실 앞에서 저 남성현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불공정한 순서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땀방울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저 남성현이 앞장서겠습니다.

잃어버린 국민의힘의 자존심을 되찾고, 8대 8 동수를 통한 12년 만의 시의회 탈환이라는 기적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흥시의원 후보 남성현 올림

시의원 후보  
**2-나 남성현**